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됐다지만... 영성한 수사시스템 범인 검거 요원

광주·전남 경찰 현주소는

미제사건 16건 달하는데 전담팀 각각 2명에 불과 인력확보·수사의지 절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광주·전남 장기 미제(未濟)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전담 인력 부재 등 수사 의지가 실종됐다는 점을 감안, 관련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0년 이후 16건...공소시효 폐지 = 26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발효될 경우 적용되는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이 16건(광주 10건·전남 6건)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2001년 9월) ▲용봉동 여대생 테이프 살해 사건(2004년 9월) ▲중흥동 회사원 둔기 살해 사건(2009년 3월) 등 10건의 살인 사건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다.

전남에서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 사건(2001년 2월)을 비롯, ▲여수 30대 중장비 기사 흉기 살해사건(2005년 12월)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2010년 10월) 등 6건의 강력 사건이 영구 미제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적용 주요 사건

공소시효 15년(기존) → 25년(2007년 법 개정) → 폐지(태완이법)

■ 광주·전남 2000년 이후 주요 장기 미제살인사건

발생 시기·장소	사건개요	기존 공소시효 만료일
'01.9.4·서구 내방동	30대 임산부, 흉기로 11차례 찔려 사망	2016년 9월 3일
'01.9.6·북구 오치동	40대 이용원 여주인, 흉기로 6차례 찔려 사망	2016년 9월 5일
'03.3.25·남구 방림동	60대 여성, 얼굴 등 수차례 폭행당해 숨진 채 발견	2018년 3월 24일
'04.1.21·북구 중흥동	60대 건물주, 둔기로 머리 맞고 사망	2019년 1월 20일
'04.9.14·북구 용봉동	20대 여대생, 테이프로 얼굴 감겨진 채 폭행, 사망	2019년 9월 13일
'05.5.15·광산구 하산동	40대 주유소 관리소장, 둔기로 폭행당해 사망	2019년 5월 14일
'06.11.19·남구 서동	40대 노숙인, 흉기로 8차례 찔려 사망	2021년 11월 18일
'07.4.17·남구 사동	40대 택시기사, 배 등 8차례 찔려 사망	2022년 4월 16일
'08.10.19·동구 대인동	60대 식당주인, 둔기로 머리 맞고 사망	2033년 10월 18일
'09.3.19·북구 중흥동	40대 회사원, 벽돌로 머리를 폭행당해 사망	2034년 3월 18일

◆전남

'01.2.4·나주시 남평읍	17세 여고생, 성폭행 당한 뒤 살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04.8.3·영암군 미암면	50대 여성, 흉기로 찔려 사망	2019년 8월 2일
'05.5.13·순천시 외서면	50대 경비원, 머리 11차례 맞아 숨진 채 발견	2020년 5월 12일
'05.12.3·여수시 돌산읍	30대 중장비 운전기사, 흉기로 200여 차례 찔린 채 사망	2020년 12월 2일
'07.1.5·화순군 능주면	80대 노인, 벽돌 제조공장에서 손발 묶인 채 살해	2022년 1월 4일
'10.10.15·목포시 용해동	20대 여대생, 귀가 중 성폭행·살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 개정안 공포 이전 기준

포되던 이들 살인 사건 공소시효도 없어져 범인을 끝까지 추적,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여섯 살이던 김태완군을 황산 테러로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난 때까지 잡히지 않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 범인 실효성 높일 수사 의지 보여야 = 경찰 안팎에서는 그러나 형식적인 수사 여건 등으로 미뤄 관련법 통과 이후 해당 미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띠지 못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광주·전남청의 경우 각각 자료 분석에만 2~3개월 걸리는 장기 미제 사건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데 고작 2명을 '전담팀'이라는 이름으로 맡겨놓고 있다. 그러나 광주청의 경우 지난 3월에 교체된 미제 사건 담당

인력은 조폭·보복운전 등 업무도 병행해 '말 뿐인' 전담이나 다름없다. 전남도 서류 재검토를 거쳐 용의자 DNA(목포 여대생 살인사건)를 확보한 것 외에 다른 사건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지방청이 맡지 않는 사건들의 경우 "각 관할 서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는 지방청 입장도 달리, 담당 수사관조차 없거나 "지방청에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는 게 지역 경찰서 상황이다.

인력에서는 나주경찰이 지난 2000년 8월 25일 나주 만봉천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 번사 사건과 관련, 타살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살인 사건이 아닌, 번사 처리해 내사 종결한 점을 들어 수사 의지에 대한 뒷말도 무성하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여객선 타려 유턴하다...승용차 바다 추락 3명 사망

여성 4명 탑승...1명 구조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께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유모(여·49)씨가 몰던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콘크리트로 된 추락방지시설(높이 50cm·두께 20cm)을 들이받은 뒤 3m 아래 바다로 빠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유씨와 함께 타고 있던 안모(여·44)씨 등 3명이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직원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이날 부부 동반 모임으로 휴가차 서울과 안양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승용차엔 여성 4명만 타고 있었으며, 남성들은 매표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유씨는 이날 승용차를 여객선에 승선시키기 위해 유턴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고 승용차에서 굉음이 갑자기 들리더니 바다 쪽으로 돌진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직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께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바다로 추락한 유모(여·49)씨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동자승 아버지’의 탈선

성폭행 혐의 스님 구속

장성경찰은 지난 23일 자신이 입양해 보살피던 동자승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스님 A(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사찰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B양을 입양해 키우는 과정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7년간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현재 A씨의 사찰에서 머무르던 동자승은 총 23명(남자 19명·여자 3명)으로, 장성군과 교유청은 이들을 인근 체험학습장으로 옮겨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동반한 '방학캠프'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을 되찾는 대로 B양 외 다른 동자승들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등 추가 범죄 여부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아이들에 대한 A씨의 친권 취소를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며,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A씨의 사찰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지갑 훔친 대학생 영화관 직원에 델미



○영화관 좌석에 떨어진 지갑을 훔쳐 간 대학생이 영화관 직원의 눈썰미 때문에 경찰에 델미.

○26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박모(19)군은 지난 19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M영화관 관람석에서 현금 13만 원이 든 김모(27)씨의 지갑을 몰래 주워 달아난 혐의.

○박군은 영화가 끝난 직후 열좌석 바닥에 떨어진 김씨의 지갑을 보고 몰래 들고 나왔으나 청소차 상영관에 온 직원이 이 장면을 목격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현금을 보고 순간 마음이 동했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입건키로

검찰 불기소...경찰이 재수사 14년만에 범인 잡을지 주목

경찰이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장기미제화 됐던 사건의 실체가 14년 여만에 드러나는 셈인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수사 결과와 반대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나주경찰은 지난 2001년 2월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당시 17세) 살인사건과 관련, "용의자에 대한 재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입건키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와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한 진술 분석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숨진 여고생은 옷이 벗겨진 채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초기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장기미제화 됐던 사건의 용의자로 목포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38·2001년 당시 24세)씨를 2012년 뒤

늦게 지목,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었다.

박양 사건과 관련 보관중인 유전자와 김씨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대검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한 재수사였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최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앞서, 관련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 또다시 검찰에 송치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최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